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권 2호 (2022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차수빈, 장혜인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수 감각 정확도와 심적 표상: 수직선 추정 과제를 중심으로	임수현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읽기 부진과 인지적 결손	조종열, 김영숙, 박순길, 김봉희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김태연, 최은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단기종단연구	이화진, 임지영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차별적 매개효과	구소진, 박은영
유아의 놀이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지영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한빛, 이훈진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손영지, 이승연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진빌딩 2층
전 화 : 02-336-6672

인쇄일 : 2022년 6월 15일
발행일 : 2022년 6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노수림(충남대학교)

편집위원 : 강연욱(한림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연수(전주대학교)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박유정(서울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송주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신희영(전북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심사위원 : 조수현(중앙대학교) 맹세호(가톨릭대학교) 문영경(부산대학교) 백현아(광주과학기술원)
 최영은(중앙대학교) 권미경(유타대학교) 한소원(서울대학교) 이새별(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김은영(순천향대학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경선(성신여자대학교) 최은실(가톨릭대학교)
 이정윤(성신여자대학교) 오인수(이화여자대학교) 옥 정(서울사이버대학교) 윤진영(세명대학교)
 이승희(동아대학교) 장경은(경희대학교) 정명숙(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현지(삼성전자)
 이수란(백석대학교) 김수안(서울대학교) 하정희(한양대학교) 이운영(충남대학교)
 장은영(호남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35, No. 2

June 15,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ditor : Soo 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Yeonwook Kang(Hallym Univeristy)

Yenosoo Kim (Jeonju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ijung Seo(Jeju National University)

Seung-yeon Lee(Ewha Womans University)

Giveon Kim(Chung-Ang University)

Eun Young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Youje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uiyoung Sh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ujung Choi(Southern Illinois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35 권 제 2 호 / 2022. 6.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차수빈, 장혜인 / 1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수 감각 정확도와 심적 표상: 수직선 추정 과제를 중심으로	임수현 / 25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읽기 부진과 인지적 결손	조증열, 김영숙, 박순길, 김봉희 / 45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김태연, 최은실 / 73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단기종단연구	이화진, 임지영 / 93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차별적 매개효과	구소진, 박은영 / 115
유아의 놀이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지영 / 133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한빛, 이훈진 / 157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손영지, 이승연 / 181

한국발달심리학회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Received: September 28, 2021
Revised: January 28, 2022
Accepted: June 3, 2022

차수빈¹, 장혜인²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학생¹,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ichang@skku.edu

The Impact of Childhood Trauma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College Students: Early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as Sequential Mediators

Soobeen Cha¹, Hyein Ch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²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33명(남 100명, 여 133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 초기애착, 성인애착, 경계선 성격성향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 각각의 단독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차례로 거쳐 경계선 성격성향을 예측하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불안정한 초기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불안정한 초기애착이 이후 불안정한 성인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결국 높은 수준의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대표적 위험요인인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애착을 중심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경계선 성격성향 대학생 집단에 개입할 때 애착 기반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초기애착, 성인애착,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자아상, 정서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성격장애로, 이러한 양상이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APA, 2013). 경계선 성격장애는 임상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진단되는 성격장애이기도 한데(Beckwith et al., 2014),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0.7-5.9%로 추정되며, 정신과 외래환자에서의 유병률은 10%, 정신과 입원환자에서의 유병률은 15-25%로 보고되고 있다(Peng et al., 2021). 일반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개인의 75%가 여성이다(APA, 2013). 또한 높은 자해 및 자살률을 보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상,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임상적·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Gunderson et al., 2018) 경계선 성격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발병 기제 탐색의 중요성이 시사된다.

과거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임상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홍수연, 이승연, 2013), 최근 경계선 성격장애가 경계선 성격성향 연속선의 극단에 해당한다는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델(Widiger & Trull, 2007)이 제시됨에 따라 경계선 성격성향 수준의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echt et al., 2014; Baryshnikov et al., 2017; Peng et al., 2021). 그 결과,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이는 개인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와 질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Jopling 등(2016)은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과 경계선 성격성향 집단, 기분 및 불안장애 환자로 구성된 통제집단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였는데, 자살사고, 외현화 증상, 충동

성, 물질남용이 경계선 성격 및 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임상적 특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성격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정서조절 곤란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이 있으며, 경계선 성격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증상을 보임이 확인되었다(Fonseca-Pedrero et al., 2011; Stepp et al., 2014). 이에 더해, 높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인 대학생의 13%가 실제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Trull, 1995), 이들은 낮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인 대학생에 비해 2년 후 다른 정신장애나 학업·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Trull et al., 1997). 결론적으로, 경계선 성격성향은 경계선 성격장애 만큼 심각한 기능 손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Trull, 1995), 이후의 경계선 성격장애 발병 및 지속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Gunderson et al., 2018) 경계선 성격성향이 성격장애로 발전하기 이전에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성향의 발병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기의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Ibrahim et al., 2018).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30-90%가 아동기 외상경험을 보고했으며(Godbout et al., 2019), 아동기 외상 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의 모든 하위 척도, 즉 정서적 불안정, 정체성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손상에서의 더 높은 점수와 연관되었다(Hecht et al., 2014). 구체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에 비해 아동기 외상경

험을 상당히 많이 보고하며(Yen et al., 2002), 성격장애 범주 내에서 비교했을 때에도 다른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아동기 외상경험을 보고했다(Chapman, 2019).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군은 비임상군에 비해 13배 많은 아동기 외상경험을 보고했다(Porter et al., 2019). 마지막으로 동성 쌍둥이 1,116쌍을 대상으로 한 12년 종단연구의 결과, 10세까지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12세 때 아동의 경계선 성격성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Belsky et al., 2012),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이후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그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가 다양하게 고려되어 왔다(이우경, 최은실, 2013). 특히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기여하게 되는 핵심 기제로써 애착의 역할이 강조되었다(Baryshnikov et al., 2017).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는데(Lowell et al., 2014), 불안정 애착은 경계선 성격성향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Miljkovitch et al., 2018). 이러한 이론적 제안과 일관되게 경험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aryshnikov et al., 2017; Peng et al., 2021).

이렇듯 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계선 성격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이나, 이때 애착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애착은 본래 아동과 주 양육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달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Levy, 2005). 대표적으로, Bowlby(1973, 1988)는 아동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상호작용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구성하며(양수진, 이정운, 2012),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일생 동안 개인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아동의 욕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이를 충족해주었다면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욕구 충족의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며,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 즉 내적작동모델은 아동의 절차 기억에 부호화되며 이후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반응양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휴리스틱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vy, 2005). 이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초기애착이 이후의 애착패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허인아, 이민규, 2017), 애착의 연속성을 지지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Bowlby(1988)가 애착이론을 발달시킨 이후 이러한 애착의 연속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었으며(Cassidy, 2001, Hazan & Shaver, 1987; Rothbard & Shaver, 1994), 애착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초기애착만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애착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대인관계는 초기애착의 확장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기존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Cook, 2000; Overbeek et al., 2003; Shorey & Snyder, 2006) 애착의 연속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개인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에서 친

구·연인과 같은 대상으로 애착 대상이 점차 이동하며, 이러한 애착의 전환 과정을 통해 초기애착의 영향이 감소하게 된다고 보았다(Overbeek et al., 2003). 이는 친구 및 연인과의 친밀한 관계도 애착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인애착은 초기애착과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작용한다는 것으로(Cook, 2000; Overbeek, 2003; Shorey & Snyder, 2006) 애착의 비연속성을 지지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애착의 비연속성이란 생애 초기 부모와 특정한 형태의 애착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 애착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Shorey & Snyder, 2006).

애착의 연속성에 대한 논쟁은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 중 한 가지만이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Cummings-Robeau et al., 2009),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함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는 현재 검증된 바 없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초기애착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향적 종단연구에서 12-18개월 때의 불안정한 초기애착 및 학대는 28세 때의 경계선 성격성향과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arlson et al., 2009).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화 곤란이 부분

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Duval et al., 2018), 이 정신화 곤란은 생애 초기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다(Fonagy et al., 2002).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국한하여 진행된 연구는 아니나 아동기 외상과 성격장애 진단 간 관계에서 불안정한 초기애착의 하위유형인 비조직 애착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Cirasola et al., 2017).

이렇듯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를 지지하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성인진입기까지는 초기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성인진입기란 Arnett(2000, 2006)이 제안한 개념으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18-29세가 이에 해당한다. 본래 이 시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성인기로 분류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20대에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성인기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받게 된다(김누리, 신나나, 2017). 따라서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로부터 친구·연인 등으로의 애착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Hazan & Shaver, 1987) 최소한 성인진입기까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애착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초기애착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기애착의 영향을 확인한 세 편의 연구 중 두 편이 성인진입기의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ng et al., 2021). 이러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성차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아버지에 의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각각에 의해 매개되었으나, 어머니에 의한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는 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어머니에 의한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애착에 의해 매개되었으나, 아버지에 의한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는 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Godbout et al., 2019).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성향과의 공병을 흔하게 보이는 기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의 하위유형인 불안애착이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yshnikov et al., 2017).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한 연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아동기 외상경험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애착과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결과 사이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초기애착이 대인관계 민감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애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s-Robeau et al., 2009). 즉, 초기애착이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 역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역할을 함께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 및 성인애착을 거쳐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내 경로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경계선 성격성향이 주로 청소년 후기에서부터 성인진입기까지의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이 처음 내려지는 시기가 성인진입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McLachlan et al., 2021). 또한 이미 경계선 성격성향 및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타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에 적절한 심리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진입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Miljkovitch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아동기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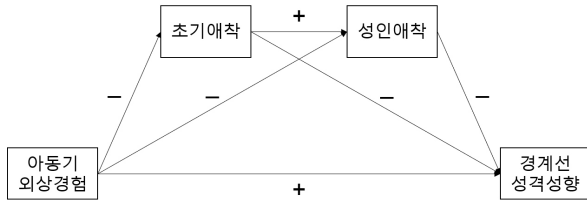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 2. 초기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를 통해 전국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아동기 외상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17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2.77세 (SD=2.44)로, 남성이 100명(42.92%), 여성이 133명(57.08%)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가 18-29세인 것으로 나타나, 모두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연구도구

아동기 외상경험

아동기 외상경험은 Bernstein 등(2003)이 개발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번안 및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판(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으로 측정되었다. Bernstein 등(2003)의 원척도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김은정과 김진숙(2010)은 성적 학대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에 따라 성적 학대를 제외한 4개 하위요인들만을 타당화하여 사용하였다. CTQ-SF는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초기성인기에 속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전의 외상경험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아동기 외상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각 하위요인별로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음(1점)'부터 '자주 있음(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전혀 없음(1점)'으로 응답하여 총점이 20점인 경우는 아동기 외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경험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초기애착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한 초기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여 옥정(1998)이 번안 및 수정하고, 이를 다시 이시연 등(2014)이 초기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문장을 과거형으로 수정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척도를 제외하고 부모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부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을 각각 따로 측정하였고, 전체 부모에 대한 초기애착은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더한 다음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IPPA-R은 신뢰(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감(6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고, 총점이 높을수록 초기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신뢰는 '나는 아버지를 신뢰했다', 의사소통은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렸었다.', 소외감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 등으로 구성된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부 애착 .93, 모 애착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부 애착 .95, 모 애착 .95, 전체 부모애착 .96으로 나타났다.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62, p<.01$).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Brennan 등(1998)가 개발하여 Fraley 등(2000)이 개정하고, 김성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로 측정되었다. ECR-R은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애착을 불안애착(18문항)과 회피애착(18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ECR-R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아주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부정

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역채점했기 때문에 총점이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불안애착 .89, 회피애착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불안애착 .93, 회피애착 .90, 전체 성인애착 .92로 나타났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6, p<.01$).

경계선 성격성향

경계선 성격성향은 Morey(1991)가 개발하고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로 측정되었다. PAI-BOR은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절단점은 39점이며, 총점이 39점 이상인 집단은 임상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다. 홍상환과 김영환(1998)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참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성별, 연령, 학년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아동기 외상경험, 초기애착, 성인애착, 경계선 성격성향의 순서로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7)의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 각각의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 수를 10,000개로 설정하고 95% 신뢰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 범위는 .02~.91이었고 첨도 범위는 -.34~.49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첫 번째로 종속변인인 경계선 성격성향은 아동기 외상경험($r=.4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초기애착($r=-.32, p<.01$)과 성인애착($r=-.52, p<.01$)과는 각각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두 번째로 독립변인인 아동기 외상경험은 초기애착($r=-.71, p<.01$), 성인애착($r=-.32,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은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36, p<.01$)

한편 각 변인에서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로 측정한 참가자들의 경계선 성격성향 점수 평균은 26.58($SD=10.07$)점이었으며,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233)

변인	1	2	3	4
1 아동기 외상경험	-			
2 초기애착	-.71**	-		
3 성인애착	-.32**	.36**	-	
4 경계선 성격성향	.41**	-.32**	-.52**	-
평균	33.11	85.72	148.91	26.58
표준편차	9.50	16.84	27.14	10.07

** $p<.01$.

5점부터 58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전체 참가자 중 30명(약 12.88%)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현재의 경계선 성격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44$, $p < .001$), 총 변량의 17%($F_{1,231} = 47.20$)를 설명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다. 먼저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에 미치는 영향($B = -1.25$, $p < .001$)과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B = .40$, $p < .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과 달리, 초기애착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 = -.03$, $p = .52$). 다음으로 매개경로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을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 = .04$, 95% CI[-.08, .17]).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다. 먼저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B = -.92$, $p < .001$)과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B = .44$, $p < .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애착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였다($B = -.16$, $p < .001$). 다음으로 매개경로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애착을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 = .15$, 95% CI[.09, .21]).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초기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 = -1.25$, $p < .001$), 초기애착은 성인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 = .44$, $p < .001$), 성인애착은 경계선 성격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17$, $p < .001$). 그러나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을 거치지 않고 성인애착에 직접 미치는 영향($B = -.37$, $p = .14$)과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을 거치지 않고 경계선 성격성향에 직접 미치는 영향($B = .04$, $p = .40$)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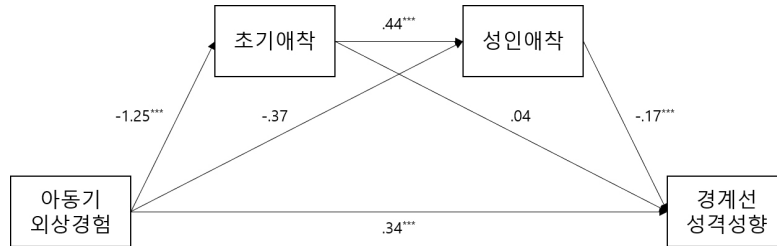


그림 2.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임). * $p < .05$, ** $p < .01$, *** $p < .001$

성인애착을 매개로 하지 않고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4$, $p < .001$).

다음으로 매개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만을 통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Ind 1)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5$, 95% CI[-.17, .07]).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애착만을 통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Ind 2)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6$, 95% CI[-.01, .13]).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Ind 3)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 = .09$, 95% CI[.02, .18]).

논 의

본 연구는 성격장애가 본격적으로 진단되는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애착을 통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애착의 역할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단 순매개효과 및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표 2. 아동기 외상 경험과 경계선 성격 성향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효과 크기	BOOT SE	LL 95% CI	UL 95% CI
총효과		.44	.06	.31	.56
직접효과		.33	.08	.18	.49
총간접효과		.10	.06	-.02	.23
Ind 1	아동기 외상 경험 → 초기애착 → 경계선 성격 성향	-.05	.06	-.17	.07
Ind 2	아동기 외상 경험 → 성인애착 → 경계선 성격 성향	.06	.04	-.01	.13
Ind 3	아동기 외상 경험 → 초기애착 → 성인애착 → 경계선 성격 성향	.09	-.04	.02	.18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첫 번째로, 아동기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Hecht et al., 2014).

두 번째로, 가설과 달리 초기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과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유의하였으나, 초기애착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불안정한 초기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Lowell et al., 2014), 초기애착이 불안정할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발병 가능성이 높다(Milljkovitch et al., 2018)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에서 친구·연인 등으로의 애착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Hazan & Shaver, 1987),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대학생들은 이러한 애착의 전환을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초기애착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으로 애착이 전환됨에 따라 개인의 전반적인 애착 양상이 성인애착의 영향을 받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성향에 대한 초기애착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인애착 개념이 낭만애착에 한정되지 않고 친구·연인 등의 친밀한 관계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친구 및 낭만적 관계에서

의 불안애착 간 중복성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Caron et al., 2012). 이에 더해 성인진입기 개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낭만적 관계의 초기에는 연인에 대한 애착 선호도가 증가하고 후기에는 친구에 대한 애착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친구와 연인에 대한 애착 선호도 사이에 교류가 나타났다(Umemura et al., 2017)는 점을 고려하면 낭만애착만으로는 이 시기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성인애착 개념은 그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자들 간 애착 대상이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은 부모에서 친구·연인 등으로의 애착전환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친구에 대한 애착과 연인에 대한 애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포괄적인 성인애착을 측정한 것은 낭만적 애착만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진입기 이후 성인애착의 양상을 연구에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애착과의 연속성 및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애착이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aryshnikov et al., 2017; Peng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생애 초기부터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초기애착에 의해 개인의 전반적인 애착 양상이 결정되나(Bowlby, 1988), 청소년기에 진입하여 부모 외의 중요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

(Steinberg, 1990)에서 초기애착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가 반복적으로 발견될 경우, 성인애착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애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Shorey & Snyder, 2006).

마지막으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은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초기애착 및 성인애착이 차례대로 좋지 않으며, 경계선 성격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을 거치지 않고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기 외상 경험이 초기애착을 거치지 않고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세 가지의 간접경로 중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각각 단순매개하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성인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제안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aible et al., 2000).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이 불안정한 초기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불안정한 초기애착이 이후 불안정한 성인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결국 높은 수준의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순차매개모형의 분석결과는 초기애착이 이후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의 연속성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애착의 비연속성을 지지하는 관점에 가까운 결론이 도출되었던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단순매개모형에 대한 해석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그러나 단순매개모형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고 하더라도, 순차매개모형에서는 성인애착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애착은 초기애착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모형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 중 한 가지만 포함했을 경우에는 애착의 연속성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두 가지 애착을 함께 탐색하는 모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 아동기 외상경험과 애착의 하위유형에 따라 이후의 심리사회적 결과를 예측하는 기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므로(Cummings-Robeau et al., 2009; Peng et al., 2021; 이시연 등, 2014), 향후에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애착의 구체적인 하위유형에 따른 차이까지 고려하여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애착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착의 연속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탐색되어 온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한 모형 내에서 함께 검증함으로써,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애착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동일한 모형 내에서 함께 탐색한 선행연구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Cummings-Robeau et al., 2009, Kim et al., 2021),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계선 성격성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들을 매개변인으로써 비교하기보다는 독립변인이나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애착과 성인

애착의 순차적 매개모형을 상정함으로써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초기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 성인기의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생애 초기의 부정적 환경 경험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애착의 연속성과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아동기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아동이나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를 지닌다. 즉, 생애 초기에 외상을 경험하였으나 적절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초기애착을 형성한 경우, 이러한 관계적 어려움이 성인애착 문제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경계선 성격성향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인한 기능손상으로 전문적 치료를 구하는 초기 성인기 내담자에 개입할 때,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인생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애착이 중요한 치료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중 Bowlby(1973, 1988)의 애착이론에 기반하여 고안된 치료들이 존재하며, 이를 애착기반 치료(Attachment-based treatment)라고 한다(Bateman & Fonagy, 2003). 애착기반치료는 치료자가 환자에게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Bowlby(1977)의 구상에 근거한 것으로, 애착 대상으로서의 치료자는 환자가 과거와 현재의 애착 관계를 탐색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현재 환자의 내적작동모델 및 문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환자가 기존의 내적작동모델을 수정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보다 적응적인 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Levy et al., 2015). 한편 경계선 성격장애의 애착기반치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MBT)로, MBT의 주된 목표는 환자의 정신화 능력 함양을 통해 애착 불안정이 성격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되돌리는 것이다(Fonagy & Bateman,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MBT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Bales et al., 2012; Smits et al., 2020; Vogt & Norman, 2019), 통제집단에 비해 치료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tema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성향 대학생 집단에 개입할 때 애착기반치료를 비롯해 애착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임상군에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성향 점수의 평균은 PAI-BOR 척도에서 임상군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인 39점보다 낮은 26.58점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경험 점수의 평균은 33.11점으로, 참가자들은 CTQ-SF 척도의 전체 범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아동기 외상경험을 보고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군이나 실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통해 진행되었기에 표본이 편향되거나 부주의한 응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자료와 대등하거나 우수한 수준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지영, 김진교, 2006)를 고려했을 때,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아동기 외상경험과 초기애착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회고적으로 측정하는 것 역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인데, 과거에 대한 참가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편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usser & Widom, 201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성인애착을 측정했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는데, 측정방식에 따라 애착의 서로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애착역동 관점에서의 스트레스-취약성을 반영하는 데 반해 전문가 면담은 마음의 무의식적인 처리과정과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측정방식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Roisman et al., 2007).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무의식적인 처리과정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Ravitz et al., 2010).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장애 환자들의 회고적 보고가 신뢰할만하다는 근거가 계속 제시되고 있으며(Fisher et al., 2011; Herman & Schatzow, 1987; Varese et al., 2012), 내적경험은 겉으로는 관찰되기 어려운 면도 있기에 자기보고식 질문지 사용은 개인의 심리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외상경험을 한 아동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설계를 활용하거나 아동학대 신고기록, 전문가 면담이나 행동관찰 등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이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초기애착은 회고적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성인애착 양상이 초기애착에 대한 참가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두 애착 사이의 관계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두 애착 변인을 종단적으로 추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단순히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만 나누어 측정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애착유형 중 두려움형과 몰입형 애착과 높은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Choi-Kain et al., 2009; Miljkovitch et al., 2018),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초기애착의 세부 유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Adult Attachment Interview(AAI)와 같은 전문가 면담을 활용하여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세부유형에 따른 매개효과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설계로 연구에 포함된 변인간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이론적으로 초기애착은 성인애착에 선행하며 성인애착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는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기부터 성인진입기까지 전향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성향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

치는 기제를 애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부적응적 성격으로 인한 학업 및 직업 장면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기능손상은 초기 성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지속되는 만큼 본 연구는 이 시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누리, & 신나나 (2017).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2), 19-42.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23-44.
<https://doi.org/10.15703/kjc.21.3.202006.23>
- 양수진, & 이정운 (2012).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921-1935.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연, 박성연, 지연경 (2014).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부모의 초기 애착과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9), 101-122.
- 이우경, & 최은실 (2013).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불안정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2), 413-430.
- 허인아, & 이민규 (2017). 성인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71-91.
- 홍상환, &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259-271.
- 홍수연, & 이승연 (2013).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003-302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Arnett, J. J. (2006). Emerging Adulthood: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pp. 3-1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1381-001>
- Bales, D., van Beek, N., Smits, M., Willemsen, S., Busschbach, J. J., Verheul, R., & Andrea, H. (2012). Treatment outcome of 18-month, day hospital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MBT) in patients with sever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4), 568-582.
<https://doi.org/10.1521/pedi.2012.26.4.568>
- Baryshnikov, I., Joffe, G., Koivisto, M., Melartin, T., Aaltonen, K., Suominen, K., Rosenström, T., Näätänen, P., Karpov, B., Heikkinen, M., & Isometsä, E., (2017). Relationships between self-reported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s, attachment style, neuroticism and feature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mood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0, 82-89.
<https://doi.org/10.1016/j.jad.2016.12.004>
- Bateman, A. W., & Fonagy, P. (2003). The development of an attachment-based treatment program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7(3: Special Issue), 187-211.
<https://doi.org/10.1521/bumc.67.3.187.23439>
- Bateman, A. W., Fonagy, P., & Campbell, C. (2018).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In W. J. Livesley & R. Larstone (Eds.), *Hand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41-554). The Guilford Press.
<https://doi.org/10.1521/pedi.18.1.36.32772>
- Beckwith, H., Moran, P. F., & Reilly, J. (2014). Personality disorder prevalence in psychiatric outpati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8(2), 91-101.
<https://doi.org/10.1002/pmh.1252>
- Belsky, D. W., Caspi, A., Arseneault, L., Bleidorn, W., Fonagy, P., Goodman, M., ... & Moffitt, T. E. (2012). Etiological features of borderline personality related characteristics in a birth cohort of 12-year-ol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1), 251-265.
<https://doi.org/10.1017/S0954579411000812>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Stokes, J., Handelsman, L., Medrano,

- M., Desmond, D., &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2), 169-190.
[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41-0](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41-0)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In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pp. 1-429).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3), 201-210.
<https://doi.org/10.1192/bjp.130.3.201>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 1-10.
<https://doi.org/10.1176/ajp.145.1.1>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 46-76). The Guilford Press.
- Carlson, E. A., Egeland, B., & Sroufe, L. A. (2009).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sympto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311-1334.
<https://doi.org/10.1017/S0954579409990174>
- Caron, A., Lafontaine, M. F., Bureau, J. F., Levesque, C., & Johnson, S. M. (2012). Comparisons of close relationships: An evaluation of relationship quality and patterns of attachment to parents,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in young adul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44(4), 245 - 256.
<https://doi.org/10.1037/a0028013>
- Cassidy, J. (2001). Truth, lies, and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2), 121-155.
<https://doi.org/10.1080/14616730110058999>
- Chapman, A. L. (2019).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1(3), 1143-1156.
<https://doi.org/10.1017/S0954579419000658>
- Choi-Kain, L. W., Fitzmaurice, G. M., Zanarini, M. C., Laverdiere, O., & Gunderson, J. G.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s, interpersonal dysfunc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7(11), 816-821.
<https://doi.org/10.1097/NMD.0b013e3181bea56e>
- Cirasola, A., Hillman, S., Fonagy, P., &

- Chiesa, M. (2017). Mapping the road from childhood adversity to personality disorder: The role of unresolved states of mind.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11*(2), 77-90.
<https://doi.org/10.1002/pmh.1365>
- Cook, W. 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85 - 294.
<https://doi.org/10.1037/0022-3514.78.2.285>
- Cummings-Robeau, T. L., Lopez, F. G., & Rice, K. G. (2009). Attachment-related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roblems with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3), 364-391.
<https://doi.org/10.1521/jscp.2009.28.3.364>
- Duval, J., Ensink, K., Normandin, L., & Fonagy, P. (2018). Mentalizing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Adolescent Psychiatry, 8*(3), 156-173.
<https://doi.org/10.2174/2210676608666180829095455>
- Fisher, H. L., Craig, T. K., Fearon, P., Morgan, K., Dazzan, P., Lappin, J., Hutchinson, G., Doody, G. A., Jones, P. B., McGuffin, P., Murray, R. M., Leff, J., & Morgan, C. (2011).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psychosis patients' retrospective reports of childhood abuse. *Schizophrenia Bulletin, 37*(3), 546-553.
<https://doi.org/10.1093/schbul/sbp103>
- Fonagy, P., & Bateman, A. (2008).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A mentalizing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1), 4-21.
<https://doi.org/10.1521/pedi.2008.22.1.4>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L., & Target, M. (2018).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429471643>
- Fonseca-Pedrero, E., Paino, M., Lemos-Giráldez, S., Sierra-Baigrie, S., González, M. P. G. P., Bobes, J., & Muñiz, J. (2011).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5*(4), 542-556.
<https://doi.org/10.1521/pedi.2011.25.4.542>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https://doi.org/10.1037/0022-3514.78.2.350>
- Godbout, N., Daspe, M. È., Runtz, M., Cyr, G., & Briere, J. (2019). Childhood maltreatment,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related symptoms: Gender-specific structural equation model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1*(1), 90-98.
<http://dx.doi.org/10.1037/tra0000403>

- Gunderson, J. G., Fruzzetti, A., Unruh, B., & Choi-Kain, L. (2018). Competing theorie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2*(2), 148-167.
<https://doi.org/10.1521/pedi.2018.32.2.148>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ttps://doi.org/10.1037/0022-3514.52.3.511>
- Hecht, K. F., Cicchetti, D., Rogosch, F. A., & Crick, N. R. (2014).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 childhood: The role of subtype, developmental timing, and chronicity of child maltrea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3), 805-815.
<https://doi.org/10.1017/S0954579414000406>
- Herman, J. L., & Schatzow, E. (1987). Recovery and verification of memories of childhood sexual trauma. *Psychoanalytic Psychology, 4*(1), 1-14.
<https://doi.org/10.1037/h0079126>
- Ibrahim, J., Cosgrave, N., & Woolgar, M. (2018). Childhood maltreatment and its link to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pproach.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3*(1), 57-76.
<https://doi.org/10.1177/1359104517712778>
- Jopling, E. N., Khalid-Khan, S., Chandrakumar, S. F., & Segal, S. C. (2016).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adolesc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control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30*(2).
<https://doi.org/10.1515/ijamh-2016-0036>
- Kim, S. H., Baek, M., & Park, S. (2021). Association of Parent-child Experiences with Insecure Attachment in Adulthoo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3*(1), 58-76.
<https://doi.org/10.1111/jftr.12402>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https://doi.org/10.1023/A:1005169004882>
- Levy, K. N. (2005). The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for understand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4), 959-986.
<https://doi.org/10.1017/S0954579405050455>
- Levy, K. N., Johnson, B. N., Clouthier, T. L., Scala, J., & Temes, C. M. (2015). An attachment theoretical framework for personality disorders. *Canadian*

-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56 (2), 197-207.
<https://doi.org/10.1037/cap0000025>
- Lowell, A., Renk, K., & Adgate, A. H. (2014).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later emotional and behavioral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38(9), 1436-1449.
<https://doi.org/10.1016/j.chiabu.2014.02.006>
- McLachlan, J., Mehdikhani, M., Larham, B., & Centifanti, L. C. M. (2021).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Adolescents: The Role of Implicit Theorie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1-9.
<https://doi.org/10.1007/s10578-021-01169-8>
- Miljkovitch, R., Deborde, A. S., Bernier, A., Corcos, M., Speranza, M., & Pham-Scottez, A. (2018).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adolescence as a generalization of disorganized attachment. *Frontiers In Psychology*, 9, 1962.
<https://doi.org/10.3389/fpsyg.2018.01962>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C., & Meeus, W. (2003).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28-39.
<https://doi.org/10.1037/0022-0167.50.1.28>
- Peng, W., Liu, Z., Liu, Q., Chu, J., Zheng, K., Wang, J., Wei, J., Zhong, M., Ling, Y., & Yi, J. (2021). Insecure attachment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Depression and Anxiety*, 38(1), 28-39.
<https://doi.org/10.1002/da.23082>
- Ravitz, P., Maunder, R., Hunter, J., Sthankiya, B., & Lancee, W. (2010). Adult attachment measures: A 25-year review.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4), 419-432.
<https://doi.org/10.1016/j.jpsychores.2009.08.006>
- Roisman, G. I., Holland, A., Fortuna, K., Fraley, R. C., Clausell, E., & Clarke, A. (2007).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self-reports of attachment style: an empirical rapproch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78-697.
<https://doi.org/10.1037/0022-3514.92.4.678>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31-71). Guilford Press.

- Smits, M. L., Feenstra, D. J., Eeren, H. V., Bales, D. L., Laurensen, E. M., Blankers, M., ... & Luyten, P. (2020). Day hospital versus intensive out-patient mentalisation-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ulticentre randomised clinical tri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6*(2), 79-84. <https://doi.org/10.1192/bjp.2019.9>
- Steinberg, L. (1990). Independence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L.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255-276).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pp, S. D., Scott, L. N., Morse, J. Q., Nolf, K. A., Hallquist, M. N., & Pilkonis, P. A. (2014). Emotion dysregulation as a maintenance factor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Comprehensive Psychiatry, 55*(3), 657-666. <https://doi.org/10.1016/j.comppsy.2013.11.006>
- Susser, E., & Widom, C. S. (2012). Still searching for lost truths about the bitter sorrows of childhood. *Schizophrenia Bulletin, 38*(4), 672-675. <https://doi.org/10.1093/schbul/sbs074>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1.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https://doi.org/10.1037/1040-3590.7.1.33>
- Trull, T. J., Useda, J. D., Conforti, K., & Doan, B. T. (199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2. Two-year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2), 307-314. <https://doi.org/10.1037/0021-843X.106.2.307>
- Umemura, T., Lacinová, L., Macek, P., & Kunnen, E. S. (2017). Longitudinal changes in emerging adults' attachment preferences for their mother, father, friends, and romantic partner: Focusing on the start and end of romantic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1*(1), 136-142. <https://doi.org/10.1177/0165025416647545>
- Varese, F., Smeets, F., Drukker, M., Lieveise, R., Lataster, T., Viechtbauer, W., Read, J., van Os, J., & Bentall, R. P. (2012). Childhood adversities increase the risk of psychosis: a meta-analysis of patient-control, prospective-and cross-sectional cohort studies. *Schizophrenia Bulletin, 38*(4), 661-671. <https://doi.org/10.1093/schbul/sbs050>
- Vogt, K. S., & Norman, P. (2019). Is mentalization based therapy effective in treating the symptom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2*(4), 441-464. <https://doi.org/10.1111/papt.12194>

Widiger, T. A., & Trull, T. J. (2007). Plate tectonic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shifting to a dimension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62*(2), 71-83.

<https://doi.org/10.1037/0003-066X.62.2.71>

Yen, S., Shea, M. T., Battle, C. L., Johnson, D. M., Zlotnick, C., Dolan-Sewell, R., Skodol, A. E., Grilo, C. M., Gunderson, J. G., Sanislow C. A., Zanarini, M. C., Bender, D. S., Rettew, J. B., & McGLASHAN, T. H. (2002). Traumatic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orderline, schizotypal, avoidant, and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s: findings from the collaborative longitudinal personality disorders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8), 510-518.

<https://doi.org/10.1097/00005053-200208000-00003>

Impact of Childhood Trauma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College Students: Early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as Sequential Mediators

Soobeen Cha¹

Hyein Chang²

¹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Student

²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Although it is well established that childhood trauma presents a risk factor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later life, its specific mechanism has been relatively underexplor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early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A total of 233 college students (100 men, 133 women)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childhood trauma, early attachment, adult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Results indicated that early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mong college students. These findings support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related problems.

Key words: childhood trauma, early attachment, adult attachment,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